



최달웅

변호사

TEL 051-502-2008
FAX 051-502-2340
E-MAIL dochoi@jipyong.com

최달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 사무소의 송무팀에서 각종 민, 형사, 행정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고소(고발) 및 피의사건 당사자들을 위해 초기 수사단계 때부터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고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 사무소의 형사팀에서 수사, 재판단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달웅 변호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펌인 니시무라&아사히(도쿄)에서 연수를 마쳤고, 니시무라&아사히와 등 일본 로펌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일본과 관계된涉外 사건에도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재판소에서의 소송 및 재일교포들의 한국 내 재산 처리 문제, 상속 문제 등의 처리가 대표적입니다. 송무는 물론 일본 관련 업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의 확장 및 전문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2002 군산고등학교 졸업
2010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신문방송학과 졸업
2013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200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홍보팀 인턴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일본 고베세종외국법공동사업법률사무소 연수(고베)
2020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연수(오사카)
2020 일본 Nishimura & Asahi 연수(도쿄)
2013-현재 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저서 및 논문

2023 독성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판매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증명 방법, 부산법조 제40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22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 - 신사업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 법제처
202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국내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법원행정처
2022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발굴과 보장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법조 제39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21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민주법학 제 77 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자격 취득

2013 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한국어 / 일본어